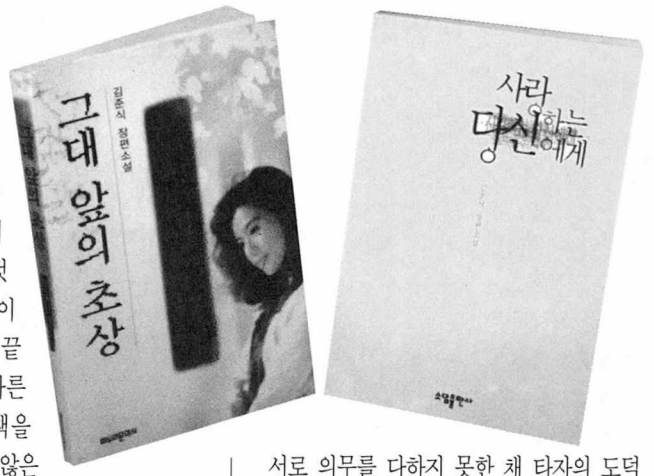
'독자의 눈' 무시한 한 소설

저자와 출판사간 불신이 빚은 독자 기만



최근 국내 소설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든 《사랑하는 당신에게》(소담출판사)가 1년 6개월 전 《그대 앞의 초상》(우리문학사)의 이름으로 출간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줄거리는 물론 문장까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소설이 서점에 나란히 꽂힌 이유는 작가 김준식씨가 같은 원고를 두 출판사에서 출간했기 때문. 이중계약으로 출간된 소설은 결국 독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너진 신뢰, 이중계약 빚어

발단은 1년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대 앞의 초상》이 발간된 지 한달여만에 출판사와 저자는 이견을 갖기 시작했다. 김씨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소설이 나온 지 한달쯤 됐기 때문에 인세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책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고 밝혔다. 90만원의 인세(우리문학사는 1백만원 지급 주장)를 받기는 했지만 불신의 씨앗은 잉태된 상태였다.

《그대 앞의 초상》은 그동안 4천부를 찍었다. 우리문학사 박경숙 편집장(당시 발행인)은 "4천부 가운데 2천8백부는 반품됐고, 나머지는 판매되거나 서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가 부진하자 김씨는 원고를 손질해 다시 출간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출판사는 책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고 대응했다. 1년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김씨와 출판사측은 드잡이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여긴 김씨는 원고를 약간 손질해 지난 5월 소담출판사에서 다시 책을 냈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의 소설을 이미 읽은 한 독자에게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 6월 21일 《그대 앞의 초상》을 읽은 독자가 서점에서 김씨의 새로운 소설을 보고 기꺼운 마음으로 샀지만, 지난번 소설과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배신감을 느낀 독자는 출판사와 서점에 강력히 항의했고, 다른 독자로부터 항의가 줄을 잇자 난처한 입장에 빠진 서점은 출판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문학사는 즉시 소담출판사에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했다. 박경숙 편집장은 "이중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소담출판사 박공배 편집장은 "저자를 믿고 출판했을 뿐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독자에게는 보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저자 김씨는 "우리문학사에서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책을 다시 살려냈다. 기회가 오면 계약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줄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저자와 출판사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작했다. 김씨는 "출판사가 재판을 찍고도 판매현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유명 작가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인세보다 신뢰 문제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없는 신진 작가였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박경숙 편집장은 "출간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개작 운운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굳이 내고 싶으면 계약을 끝내고 낼 일이다.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책을 내며 원작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글쓰는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소설이 현재 베스트셀러라는 데 갈등의 소지는 더 커진다. 광고 등 막대한 공을 들여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려놓은 소담출판사는 "저자의 말만 믿고 출판한 것은 실수지만 책이 나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덕성 회복이 중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실장은 "출판권설정 계약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의 출판권자는 저자 또는 제3의 출판사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물론 저자와 출판사간의 협의 또는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저자와 출판사는 어떤 변명을 해도 독자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서점인은 "저자와 출판사가 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독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타자의 도덕성만 탓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상지대 김정란 교수는 "유명 문인은 이미 확보된 환금성 때문에 문학적 권위를 가진 거대 출판사들로부터 문학적 호위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가 보장된 '작가 모셔가기' 작태와 상업성 제일주의에 빠진 출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힘없는 작가의 처지를 짐작케 한다. 김씨도 이같은 주장을 따른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출판사가 계약서를 무기로 힘없는 작가를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 이름 없는 저자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것은 출판사가 해야 할 또다른 몫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저자 역시 출판사를 믿고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 경주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다. "책을 많이 팔아 유명 작가로 행세할 생각이었다면 스스로를 속인 것이며, 독자를 우롱하는 작태가 아닌가"하고 말한 어느 독자의 말을 작가는 귀기울여야 한다.

지식문화를 창출하는 작가와 출판사 모두 '독자의 눈'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경고다.

—오완진 기자

"IMF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정보와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필비서!(99년도판)

법문출판사 · 법률미디어
대표전화 02)636-3011
FAX 02)636-3012

民事書式節次總覽(全二券)
• 4×6배판 • 250,000원 • 박동섭

조세회계재정총람
• 4×6배판 • 150,000원 • 고성삼

經濟經營實務總覽(全二券)
• 4×6배판 • 376,000원 • 세종문화원

新法律學 辭典
• 4×6배판 • 150,000원 • 이병태

기업경영판례법률총람
• 4×6배판 • 120,000원 • 오유방

회사운영서식계약총람
• 4×6배판 • 120,000원 • 오유방

어음수표법실무총람
• 4×6배판 • 120,000원 • 장세두

大法院質疑回信例規集
• 4×6배판 • 95,000원 • 편집부

不動産登記供託實務辭典
• 신국판 • 80,000원 • 정주수, 정상태

건축·건설계약회계총람
• 4×6배판 • 120,000원 • 대한건설법령편찬회

建築·建設實務總覽
• 4×6배판 • 120,000원 • 대한건설법령편찬회

건설·부동산판례총람
• 4×6배판 • 120,000원 • 대한건설법령편찬회

세무·회계 대사전
• 신국판 • 90,000원 • 이규봉, 박원남, 송기영

법률질의답변총람
• 4×6배판 • 150,000원 • 오용호

법률양식서식총람
• 4×6배판 • 150,000원 • 오용호

건축·토목·토지관련실무질의·회신판례
• 4×6배판 • 80,000원 • 편집부

民法實務總覽(Ⅰ)(Ⅱ)
• 4×6배판 • 250,000원 • 김동현,연기영

實用判例商法總覽
• 4×6배판 • 125,000원 • 오유방

會社實務經營總覽
• 4×6배판 • 125,000원 • 오유방

정통 새옥편
• 4×6배판 • 70,000원 • 한원석